

『承政院日記』의 진료기록 연구

홍세영. 차웅석.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A Study on the Clinical Records of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Hong Se Young. Kim Nam Il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承政院日記』 is a journal written by the scribes belonging to the Royal Secretariat and consists of objective and detailed records about events, dialogs, and actions that happened in the presence of the king and also collections of all the documents output by the Royal Secretariat. The medicine-related records in 『承政院日記』 are mainly records of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of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and related documents of operation. Of the many different entries involved with clinical practi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of the king. Through the case studies displayed in the clinical records of 『承政院日記』, trial and error of its time as well as clinical results can be verified. Sorting out of affirmative tradition that could not be handed down due to institutional interruption is also made possible through comparison of effective treatment methods of late Chosun dynasty including patterns or distinctive methods of treating specific diseases against their counterparts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of today.

Key word: Korean Traditional Medicine,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Chosun dynasty

1. 서론

『承政院日記』는 승정원의 注書가 임금을 수행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이나 언동 및 승정원에서 출납한 일체의 문서를 상세하고도 객관적으로 기록한 일기체 형식의 기록문이다.¹⁾ 또한, 『朝

鮮王朝實錄』, 『日省錄』, 『備邊司謄錄』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연대기적 사료로서 다른 기록물에 비하여 방대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어²⁾ 임진왜

E-mail : southkim@khu.ac.kr

- 1) 정만조 외. 『承政院日記』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방안. p.4
- 2) 『朝鮮王朝實錄』이 4,768만자로 이루어진데 비하여 『承政院日記』는 2억 4,125만자로 이루어져 있다. 『承政院日記』가 인조 원년에서 1910년까지 288년간의 자료만을 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선왕조실록에 비하여 매우

* 교신저자 : 김남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961-0672

란 이후 조선후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위치를 점유한다.

조선시대의 왕실의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전산화된 『朝鮮王朝實錄』을 토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朝鮮王朝實錄』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압축되거나 선별된 기록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에 『承政院日記』는 임란 이후 시기의 기록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제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기록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면에서 『朝鮮王朝實錄』과는 또 다른 연구 가치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승정원 일기에 대한 의학적 조명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영향 또한 다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承政院日記』³⁾에 수록된 의학 관련 기록은 藥房에서 담당할 임금 및 왕실 구성원에 대한 진료 기록과 업무 기록이 대표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임상 관련 내용 중 임금이 대한 진료 기록을 위주로 고찰하였다.

2. 본론

1)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진료의 형식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진료기록은 크게 藥房⁴⁾의 問安과 入診이라는 형식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입진기록 안에는 진찰과정, 증후나 처방에 대한 해석, 다양한 치료형태와 함께 의관들의 면모, 임금의 의학적 식견 등이 담겨 있으며, 문안기록에는 처방의 투여에 따른 증상의 수시 변화 상황과 이후의 치료 방향에 대한 내용이 주로 언급된다.

방대한 자료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만조 외, 『承政院日記』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방안, p.3.)

3) 『承政院日記』에 대한 구체적 열람은 'URL: <http://sjw.history.go.kr>을 참고하였다.

4) 공식적인 명칭은 內醫院이나, 『承政院日記』대부분의 진료 관련 기록에서는 藥房으로 지칭되므로, 본고에서는 원문인용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편의상 藥房으로 칭하도록 한다.

(1) 問安

여기에서 서술할 問安이라 함은 약방에서 행하는 공식적인 問安을 의미한다. 藥房의 공식 問安은 문서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묻는 啓辭問安과 수시로 행해지는 口傳問安으로 나뉜다. 啓辭問安은 대개 기일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日次問安을 위주로 하되, 왕실 지친에게 환후가 있거나 임금의 증후가 급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하였으며, 증후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처방의 선정과 변동, 복약 후, 특정 치료법을 시행한 후의 경과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계를 올려 문안하였다. 정기적인 문안인 日次問安은 영조 대까지는 명문화된 형식 없이 3일 日次, 5일 日次 등으로 필요에 따라 행하다가⁵⁾ 정조 대에 들어와서 5일 간격, 매월 6차례로 정례화 되었다.⁶⁾ 口傳問安, 혹은 口傳啓는 이동 시나 의식을 행하는 동안에 행해지기도 하였지만 부득이하게 치료에 차질이 생기거나 증후에 대한 즉각적인 논의나 치료 필요할 때에 이루어졌다.

일상적인 계사문안은 기후 변화나 寒暑의 영향을 언급하면서 야간에 불편한 증후가 없었는지, 혹은 기존의 증후에 변화가 있었는지 묻는다. 복용하던 약이 前日로 끝난 경우에는 복약 후의 증상 변화를 질문하고 새로 약을 지어야 함을 알리는데, 임금이 아닌 지친의 경우에도 모두 임금을 통하여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

5) 영조 36년의 기록은 일차 문안의 형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당시의 일차 문안은 5일 간격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번 5일분의 처방을 제입하였다. 영조는 다음 해에 음식을 잘 들지 못하고 회가 동하며 胃脈이 매우 약한 증후를 한동안 보이자 한 달 여간 처음에는 3일 간격으로, 이후에는 매일 일차 문안을 하였고 점차 회복되면서 다시 3일, 5일 간격으로 늘어났다. 만약 일차 문안과 다음 일차 문안 사이에 입진을 하게 되면 都提調가 다음 일차 문안 일시를 임금에게 확인 받았는데, 대개는 입진일을 기준으로 다시 5일 간격으로 일차 문안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6) 일차문안은 매일 계사 문안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정조의 명에 따라 1795년 5월 간격으로 매월 6차례, 즉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에 행하는 것으로 정례화되었다. 임금이 미녕하거나 중복 후 말복 정인 고열기간, 소한 후 대한 전인 용동기간, 산실청이나 호산청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익일 문안을 행하였다. (김호, 앞의 논문, p.13.)

(2) 入診

문안과는 달리 입진은 진찰과정을 보여준다. 問診, 脈診, 望診, 觸診 등이 행해지고, 조사된 증후를 바탕으로 치료법에 대한 의관들이나 임금의 의견이 활발히 논의된다. 입진은 藥房都提調, 혹은 提調가 입진과정을 기록할 기록관과 진찰할 의관들을 대동하고 참석하여 임금의 증후를 묻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개의 입진에서는 都提調의 의학적 식견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는 問證이 행해지고, 임금이 診脈을 허락하면 대기하고 있던 首醫 이하 의관들이 돌아가며 임금을 진맥하여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한다. 때로는 임금의 지정에 따라 首醫만 진맥하거나 의관 2인, 의관 3인 등으로 인원을 제한하여 진맥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 임금이 지목한 의관만 진맥하기도 하였다. 진맥이 끝나면 증후와 처방에 대한 의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관들 간에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대개는 의관들로 하여금 이후 의논하여 결정하게 하거나, 그 자리에서 의관들이 아뢴 치료법을 시행하도록 운허하였다. 임금 자신이 어느 정도 醫藥에 대한 소양을 갖추었다면 입진 과정에서 자신이 복용하고자 하는 약이나 치료 방향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였다.

처방의 최종 결정은 형식상 임금이 내리는 구조였다. 조선시대의 모든 국정 운영은 임금에게 보고되고 임금의 전교를 거쳐야 그 효력을 발휘하는데, 의학적인 치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관들이 결정한 처방이 복용하기 곤란한 약이거나 증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간혹 수정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처방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모든 湯劑와 丸劑, 茶飲을 비롯한 치료법들은 藥房의 문안이나 입진과 같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어야 했다.

임금의 증후를 조사하고 진찰하는 형식은 공식적인 입진 절차 이외에도, 의관이 따로 입시하여 症錄을 작성하거나 임금이 자신의 증후를 직접 기

록하는 등의 보조적인 방법이 있었다. 임금이 입진을 거절하였으나 증후에 대한 상세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 藥房에서 醫官의 入侍를⁷⁾ 청하게 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문안계사를 올렸다⁸⁾. 이처럼 임금이 번거롭게 생각하는 입진절차 대신 의관에게 개별적으로 진찰을 받거나⁹⁾, 의관에게 직접 증후를 전달하는 등,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택함으로써 지나친 번거로움을 피하고 원활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치료법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 차원에서, 평소에는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처방이 활용되었고, 한 가지 질환에 대하여 다각적인 치료법을 두루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 內服

① 湯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통해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치료는 역시 탕약 처방으로서, 거의 모든 질환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처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처방의 첩 수와 약재의 加減, 法製의 정밀함이다.

임금에게 올리는 처방은 적게는 한 첩에서 많게는 10첩씩 처방하였다. 대증치료제의 경우 대개 1-3첩 이상을 넘지 않았으며 효과가 입증되면 첩수를 늘려 劑入하였다.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補藥은 5첩, 혹은 10첩 단위로 처방하였다. 두 첩을 대개 하루 분량을 삼는 현재의 관행과는 달리,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하루 복용량은 하루 한 첩, 1회 복용이 기준이다. 대부분의 치료에 있어서 하루 한 첩 처방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었으며 증세가 심하거나 강도 높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하루에 두 번, 혹은 세 번으로 첩수를 늘였다.¹⁰⁾

7) 『承政院日記』 영조 3년 5월 18일

8) 『承政院日記』 숙종 40년 5월 12일

9) 『承政院日記』 영조 4년 4월 26일

10) 『承政院日記』 영조 37년 7월 14일

다음으로, 처방 구사에서는 加味の 묘가 두드러지는데, 原方 그대로 사용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증후에 따라 약재를 가감하고 용량에 변화를 주었다.¹¹⁾ 『東醫寶鑑』¹²⁾이나 『萬病回春』¹³⁾ 등으로 그 처방의 근거를 밝혔더라도 가미까지 일치하는 경우는 좀처럼 드물다. 본래 暑月傷風에 사용¹⁴⁾되는 二香散에 대한 가미를 살펴보면, 暑風과 暑熱을 동시에 치료하기 위하여 白虎湯과 合方한 후 麥門冬, 黃連酒炒 등을 가미하는가 하면,¹⁵⁾ 石膏, 麥門冬, 黃連薑汁炒, 知母, 黃芩酒炒, 羌活 등을 가미하기도 하였다.¹⁶⁾ 外感에 發散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壽世保元』 「暑症門」의 二香散元方에 羌活¹⁷⁾이나 柴胡¹⁸⁾ 등을 가미하였으며, 暑傷으로 인한 癩亂을 치료하기 위하여 白扁豆와 白芷를 줄이고 枳殼, 山梔仁, 檳榔 등을 가미하여 消暑行氣를 도모하였다.¹⁹⁾ 당시에 내의원에서 사용된 처방집이나 日記類, 症錄 등 관련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아 처방이나 가미의 원칙 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이 원방에 합방을 하거나 다양한 가미를 활용한 예들을 통하여, 임상 경험의 누적이라는 측면과 함께 처방을 독창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처방에 들어가는 약물에는 정밀한 法製를 행하였다. 약재별로 행해진 다양한 법제를 모두 고찰하기 어려우므로, 비교적 다양한 법제를 활용하는 약재 중 하나인 黃連²⁰⁾이 가미되는 처방을 중심으로, 함께 가미된 약물들의 법제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먼저 黃連은 대부분 酒炒나 薑汁炒²¹⁾하여 사용하였으며, 柴胡之劑에 가미

하는 黃連은 대개 吳茱萸煎水에 炒하여 사용하였다.²²⁾ 黃芩은 酒炒, 便炒, 혹은 生用하였으며, 知母는 鹽水炒, 酒炒, 鹽酒炒하였다. 黃柏은 蜜炙,²³⁾ 혹은 酒炒하였으며,²⁴⁾ 鹽酒炒,²⁵⁾ 鹽水炒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生地黃이나 乾地黃은 薑汁炒하거나,²⁶⁾ 술에 담갔다 썼고,²⁷⁾ 生乾地黃을 薑汁炒하거나,²⁸⁾ 酒洗 후 薑汁浸한 경우도²⁹⁾ 발견된다. 熟地黃 역시 薑汁炒³⁰⁾, 혹은 薑汁浸³¹⁾하여 사용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陳皮에 대한 법제 기록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去白하여 쓰는 경우는 간혹 발견되며,³²⁾ 補中益氣湯에 가미하는 陳皮를 炒³³⁾하여 사용한 기록이 있다. 이 밖에도, 貝母는 薑汁炒하여 사용한³⁴⁾ 경우가 많고, 牛蒡子,³⁵⁾ 車前子,³⁶⁾ 決明子³⁷⁾와 같은 작은 씨앗들은 炒하여 사용되며, 약효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갈아서 쓰기도³⁸⁾³⁹⁾ 하였다.

② 丸劑類

丸劑類는 여러 가지 이유로 활용되었는데, 일차적으로는 당제와 함께 병용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⁴⁰⁾ 당제는 속효가 있으나 멀리 효과가 미치는 것은 환제가 더 우수하다고 보아 환제를 함께 복용하였고,⁴¹⁾ 당제는

11) 『承政院日記』 숙종 2년 9월 28일

12) 『承政院日記』 효종 원년 2월 18일

13) 『承政院日記』 경종 2년 2월 26일

14) 『東醫寶鑑』 p.410.

15)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6월 27일

16) 『承政院日記』 인조 18년 5월 27일

17) 『承政院日記』 효종 원년 6월 20일

18) 『承政院日記』 효종 원년 7월 24일

19) 『承政院日記』 숙종 원년 6월 23일

20) 黃連.....酒浸炒則上行頭目舌薑汁炒則辛散衝熱有功生用治實火以吳茱萸煎水炒則調胃厚腸黃土炒治食積安蛔虫鹽水炒治下焦伏火<入門>○生用瀉心清熱酒炒厚腸胃薑製止嘔吐<回春> (『東醫寶鑑』 p.723.)

21) 『承政院日記』 인조 13년 6월 19일

22) 『承政院日記』 숙종 2년 8월 21일

吳茱萸煎水炒는 酒炒나 薑汁炒만큼 일반적으로 사용된 법제는 아니었으나, 冷熱의 부조화로 인한 설사가 지속될 때 사용하면 調胃厚腸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醫學入門』 「本草」 p.106.)

23) 『承政院日記』 인조 24년 9월 25일

24) 『承政院日記』 효종 7년 2월 22일

25) 『承政院日記』 숙종 7년 11월 18일

26) 『醫學入門』 「本草」 p.218

27) 『東醫寶鑑』 p.720.

28)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11월 14일

29) 『承政院日記』 현종 14년 5월 4일

30)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11월 14일

31) 『承政院日記』 현종 14년 5월 4일

32) 『承政院日記』 숙종 26년 4월 1일

33) 『承政院日記』 인조 24년 8월 21일

34) 『承政院日記』 효종 8년 9월 28일

35) 『承政院日記』 효종 7년 윤5월 13일

36)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6월 17일

37) 『承政院日記』 인조 13년 6월 18일

38)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8월 17일

39) 『承政院日記』 인조 14년 7월 21일

40)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8월 11일

연이어 복용하기 힘들어도 환제는 상시 복용이 가능하므로 調補의 면에서는 오히려 탕제보다 낫다고 보기도 하였다.⁴²⁾ 탕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했던 임금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니,⁴³⁾ 환제류는 탕제에 비하여 복용이 쉽고 구미를 손상하지 않으므로 임금들이 비교적 선호하는 처방 형태였다.⁴⁴⁾ 복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탕제나 산제를 作丸하는 경우도 발견된다.⁴⁵⁾

사용된 처방들 중 대증 치료제인 九味清心元은 감모에서 학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열을 내리는 데에 두루 활용된 처방이고, 牛黃膏는 외감을 비롯한 각종 발열을 치료하는 한편, 癰疽疾患⁴⁶⁾에서도 주된 치료약으로 쓰였다. 安神丸, 龍腦安神丸, 朱砂安神丸, 大安神丸은 안신과 치열을 도모하고자⁴⁷⁾ 사용되었고, 羅仙南極丹, 혹은 南極丹 역시 治熱之劑⁴⁸⁾로 활용되었다. 元戎接骨丹은 낙상 후에 사용되었고, 補中勝毒餅⁴⁹⁾, 蠟礬丸⁵⁰⁾, 地榆丸, 夏枯草丸⁵¹⁾ 등은 癰疽, 瘰癧, 瘡瘍을 치료하였으며, 猪肚丸, 黃連猪肚丸⁵²⁾ 등은 소갈증에 쓰였다. 蘇合元, 牛黃抱龍丸, 清心元, 萬病元, 木香保命丹, 蠟香膏, 桂苓元, 神明散 등은 납약으로 조제되어 왕실 밖에서도 널리 쓰였다.

환제 복용 시 치료 목적에 맞는 茶飲이나 單方藥과 병용하는 예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열을 내

리기 위해 사용된 牛黃膏, 九味清心元 등은 거의 대부분 清熱의 효과를 지닌 茶飲과 함께 사용되었는데, 牛黃膏는 金銀花茶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九味清心元은 井華水⁵³⁾와 사용하는 외에도 月經水,⁵⁴⁾ 金銀花茶,⁵⁵⁾ 冷藥,⁵⁶⁾ 桑枝茶,⁵⁷⁾ 竹瀝,⁵⁸⁾ 連翹茶,⁵⁹⁾ 石膏茶,⁶⁰⁾ 忍冬蟬退茶,⁶¹⁾ 黑豆竹葉茶⁶²⁾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을 내려주는 차음이나 단방약과 더불어 사용되었다. 이밖에도 大安神丸과 金銀花烏梅煎水,⁶³⁾ 夏枯草丸과 玄蔘酒 등 單味藥을 전탕한 일종의 茶飲이나 술과 調服한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증상에 부합되는 다양한 차음과 함께 환제를 복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배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③ 茶飲

藥房에서 지어올린 차는 기호식품으로서의 차와는 구별 된다⁶⁴⁾. 치료에 사용된 일반적인 차를 지칭할 때에는 茶飲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개별적으로는 약명 뒤에 ‘煎湯’, ‘煎’을 붙여 부르는 경우도 있다. 탕제에 비하여 煎湯液이 맑고 순하기 때문에 탕이라는 이름 대신 차라는 명칭을 붙인 것으로 추정된다.

雀舌茶와 같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를 따로 복용하는 기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치료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아 장복시의 부작용을 경계하였으며,⁶⁵⁾ 일반적으로 경미한 증상에 대하여 탕제 대신 치료하거나 평소의 증후에 대한 장기적인 치료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肥滿에 대하여 靑茶를 복용하도록 하

41) 『承政院日記』 영조 36년 3월 28일

42) 『承政院日記』 영조 33년 7월 29일

43) 『承政院日記』 인조 11년 10월 13일

44) 『承政院日記』 영조 2년 1월 28일

45) 『承政院日記』 현종 원년 12월 7일

46) 『承政院日記』 인조 9년 1월 22일

47) 『承政院日記』 정조 10년 5월 6일

48) 『承政院日記』 경종 3년 9월 10일

49) 治癰癩馬刀瘡. 黃芪一錢半 連翹一錢 防風·升麻·柴胡·甘草各五分 當歸·生地黃·熟地黃·白芍藥·陳皮·人參各三分. 右爲末 湯浸蒸餅調和 捏作二餅子晒乾 每一餅搗爲末 白湯調下(임문) 『東醫寶鑑』 p.562.

50) 治癰疽·發背·癰癩·瘰癧·惡瘡. 衛護內膜 驅解諸毒 自然內消. 如因藥毒發疽 非此莫治. 黃蠟二兩 入明白礬末四兩. 衆手和勻 作丸梧子大. 每三十九 溫酒或熟水下 日二服 內疽·腸癰尤妙(임문) 『東醫寶鑑』 p.540.

51) 『承政院日記』 현종 4년 6월 1일

52) 治消渴消中 亦治強中證. 雄猪肚一箇 黃連五兩 麥門冬·知母·瓜蒌根各四兩. 右四味爲末. 入猪肚內 以線封口 置甌中蒸爛 於石臼中令搗爛 入蜜少許 作丸梧子大. 米飲下百丸(정진) 『東醫寶鑑』 p.507.

53) 『承政院日記』 인조 27년 5월 4일

54) 『承政院日記』 인조 27년 5월 7일

55) 『承政院日記』 현종 즉위년 6월 5일

56) 『承政院日記』 숙종 26년 12월 4일

57) 『承政院日記』 숙종 40년 3월 6일

58) 『承政院日記』 숙종 41년 5월 24일

59) 『承政院日記』 숙종 41년 6월 17일

60) 『承政院日記』 숙종 41년 7월 28일

61) 『承政院日記』 숙종 42년 12월 18일

62) 『承政院日記』 영조 4년 11월 13일

63) 『承政院日記』 정조 10년 5월 6일

64) 김중오, 傳統茶藥處方的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p.96.

65) 『承政院日記』 영조 44년 10월 2일

고,⁶⁶⁾ 飽滿의 증후에 橘薑茶를 달이면서 雀舌茶를 넣거나,⁶⁷⁾ 滯氣가 있을 때 山查雀舌茶⁶⁸⁾, 陳皮雀舌茶⁶⁹⁾ 등을 투여한 기록, 痰을 내리는데 雀舌茶가 효과가 있으니 더 달여 올리라는 기록⁷⁰⁾ 등이 치료적으로 활용된 예이다.

그러나 藥房에서 처방한 茶飲은 차 잎이 들어간 차에 국한되지 않고, 한두 가지 이상의 약물로 구성되었으며 그 치료 범위가 넓고 효과도 뚜렷하였다. 처음으로 활용된 약들은 대개는 성질이 완만하여 장복에 무리가 없었고, 가벼운 氣滯症 같은 경우에는 탕약을 쓰지 않고 차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 탕약에 비하여 맛이 진하지 않아 입맛을 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교적 널리 사용되었다.

茶飲은 일시적인 치료 효과를 위해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평소의 증후를 완만하게 조절하려는 목적으로 수시로 복용하였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丸劑나 기타 單方藥物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함께 調服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시적인 활용의 경우, 滯氣가 있을 때 사용하였던 橘薑茶⁷¹⁾나 感冒나 발열질환에 사용된 金銀花茶가 좋은 예이다. 金銀花茶는 감기의 초기 증상에 가볍게 和解시키거나⁷³⁾ 감기의 미진한 증상을 치료⁷⁴⁾하고 發散峻劑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⁷⁵⁾에 복용하였으며, 癰疽⁷⁶⁾나 煩熱症⁷⁷⁾에 牛黃末과 함께 상용되는 처방 중 하나였다. 완만한 치료를 위하여 수시로 복용한 차음으로는 蔘橘茶, 蔘苓茶 등이 있다. 비위의 문제로 膈間의 痰증세나 眩暈 등을 자주 앓았던 영조는 증상 조절을 위하여 탕약 대신 蔘橘茶⁷⁸⁾를 수시로 복용하였다. 蔘苓茶는 주로 脾

胃虛損⁷⁹⁾이나 이로 인한 口味低下에 胃氣를 보하기 위해 사용⁸⁰⁾되었으며, 영조는 困憊와 眩暈症⁸¹⁾에 대하여 이 차를 장복한 기록이 있다.

④ 單方

單方藥은 탕제나 환제를 보조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竹瀝, 童便, 牛黃 등이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단방약인데, 일반적으로 竹瀝은 痰熱이나 痰飲을 치료하기 위해⁸²⁾, 童便是 清熱降氣를 목적으로⁸³⁾, 牛黃은 清熱이나 止痛을 위하여 사용⁸⁴⁾되었다. 이 외에도 狗寶는 治痰之功이 牛黃보다 낫다고 하였고⁸⁵⁾ 86) 清熱疏利의 효능이 있어 부중에도 사용⁸⁷⁾되었다. 月經水는 빈번하게 사용된 약은 아니나 인조 때에는 熱病治療를 위하여 여러 차례 사용된 기록이 있고 이후에도 우황과 함께 사용된 기록이 있다.⁸⁸⁾ 山梔子炒를 單味로 가루 내어 복용하거나,⁸⁹⁾ 止血을 위해 石灰末, 血竭末, 紫檀香末, 槐花末, 百草霜末, 瓦粉末 등을 外用으로 사용한 경우도 발견된다.⁹⁰⁾ 숙종 대의 기록을 보면, 탕약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젊은 부인의 月經인 紅鉛이나 作酪時 생기는 醜翻, 첫 아이를 득남한 부인의 乳汁과 같은 약들을 거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된 치료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⁹¹⁾

⑤ 食治

음식 치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죽으로서, 고흥식을 섭취하기 곤란하거나 구토로

66) 『承政院日記』 영조 20년 4월 22일
67) 『承政院日記』 영조 22년 7월 8일
68) 『承政院日記』 숙종 26년 10월 25일
69) 『承政院日記』 영조 21년 10월 4일
70) 『承政院日記』 영조 30년 2월 5일
71)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4월 11일
72) 『承政院日記』 정조 5년 2월 21일
73)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10월 20일
74) 『承政院日記』 인조 26년 12월 17일
75) 『承政院日記』 인조 27년 2월 28일
76) 『承政院日記』 현종 2년 3월 27일
77) 『承政院日記』 현종 3년 3월 25일

78) 『承政院日記』 영조 18년 12월 8일
79) 『承政院日記』 숙종 14년 5월 29일
80) 『承政院日記』 숙종 40년 3월 18일
81) 『承政院日記』 영조 32년 9월 3일
82) 『承政院日記』 효종 4년 4월 19일
83) 『承政院日記』 정조 원년 9월 24일
84)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18일
85) 『承政院日記』 현종 13년 9월 2일
86) 狗의 膽中黃을 말함. (『東醫寶鑑』 p.697.)
87) 『承政院日記』 숙종 42년 2월 19일
88) 『承政院日記』 인조 9년 1월 19일
89) 『承政院日記』 효종 9년 4월 7일
90)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5월 4일
91) 『承政院日記』 숙종 44년 1월 4일

인하여 비위가 손상되었을 때 원기를 보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白粥 이외에도 증후에 따라 특정 재료나 약물을 이용한 죽을 올렸는데, 때로는 약재를 가미하기도 하였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죽은 粟米飮이다. 유동식이므로 구토 등으로 인하여 음식이나 탕약을 잘 들지 못하는 경우에 胃氣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거나⁹²⁾ 病後의 元氣 회복을 위하여⁹³⁾ 처방되었으며, 미음이나 다른 죽과 함께 올리기도 하였다.⁹⁴⁾ 內醫院에서 처방한 人蔘粟米飮은 脾胃를 조리하는 粟米의 主治와 더불어 人蔘의 효능을 겸하므로 元氣를 회복하는 데에 탁월한 음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죽은 흔히 우유죽으로 알려져 있는 駝駱粥⁹⁵⁾으로서, 찹쌀을 가루 내어 駝駱⁹⁶⁾ 함께 끓인 죽이다. 牛酪은 熱毒을 치료하고 止渴시키며 胸中の 虛熱을 없애주는 작용이 있는데, 죽으로 끓여서 상복하면 매우 좋다고 되어있다.⁹⁷⁾ 駝駱粥은 치료의 보조 수단이라기보다는 中氣를 보강하기 위한 일종의 보양식이었다. 여름이면 중지하였다가 10월 1일이 되면 임금에게 올리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가 되면 司僕寺로 하여금 封進하도록 內醫院에서 분부를 내렸다.⁹⁸⁾ 駝駱粥을 만드는 駝駱匠이 따로 있었으며,⁹⁹⁾ 駝駱粥을 쓸 때 사용하는 銀招兒라는 용기도 별도로 구비되어 있었다.¹⁰⁰⁾

이외에도 蓮子粥,¹⁰¹⁾ 杏仁粥,¹⁰²⁾ 薏苡仁粥,¹⁰³⁾

太粥,¹⁰⁴⁾ 豆粥,¹⁰⁵⁾ 菽粥,¹⁰⁶⁾ 養元粥¹⁰⁷⁾ 등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脾胃를 보하기 위해 人乳를 죽과 함께 올린 경우도 있다.¹⁰⁸⁾ 또, 설사와 구토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데에 탕약을 복용하는 한편, 陳倉米와 白茯苓, 蓮肉, 竹茹 등을 함께 끓여 설당, 강즙을 섞어 복용시키기도 하였다.¹⁰⁹⁾ 죽 이외의 保養食으로 醍醐,¹¹⁰⁾ 牛臄과 黃雌鷄,¹¹¹⁾ 붕어 메추라기¹¹²⁾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병후의 조리에 紅蛤과 石魚¹¹³⁾를 올리거나 설사에 養元粥과 함께 紅蛤煎湯¹¹⁴⁾을 올린 기록이 있다.

⑥ 乳道

영유아의 경우에는 乳母로 하여금 탕약을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완만한 방식을 취하였다. 영조 28년의 기록을 보면, 생후 100일이 되지 않았던 元孫에게 발생한 紅疹을 치료하는 데에 ‘發散之劑와 같은 약을 쓸 수 없으므로 乳道로서 치료 한다’¹¹⁵⁾고 하였는데, 乳母에게 약을 복용시켜 간접적으로 유아를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元子の 열이 내리고 神氣가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원기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柴胡六君子湯을 乳母로 하여금 복용케 하는 것이 그 예이다.¹¹⁶⁾ 숙종 16년의 기록에서도, 元子の 脇下가 堅硬해지자 乳植不消로 肝經에 積이 생긴 것으로 진단하고 牛黃과 茶飮을 직접 투여하는 한편, 乳母로 하여금 柴胡雙解散을 복용케 하였다.¹¹⁷⁾

92) 『承政院日記』 숙종 10년 1월 5일

93) 『承政院日記』 숙종 26년 4월 22일

94) 『承政院日記』 숙종 26년 7월 28일

95) 『承政院日記』에서는 駝駱粥, 駝駱粥을 혼용하였다.

96) 타락은 말린 우유를 뜻하는 ‘토라크’라는 몽고어에서 유래한 말이다. 락은 우유를 끓인 후 발효시켜 응고된 것을 말한다.

97) “酪味甘 酸寒無毒. 主熱毒 止渴 除胸中虛熱 膈痛 身上熱瘡 丹疹 和鹽煮熱摩之 餘與牛 羊乳治同”(『醫學入門』 「本草」 p.441.)

98) 『承政院日記』 효종 8년 9월 20일

99) 『承政院日記』 영조 2년 12월 7일

100) 『承政院日記』 효종 7년 12월 4일

101) 『承政院日記』 효종 4년 4월 25일

102) 『承政院日記』 영조 즉위년 9월 3일

103) 『承政院日記』 숙종 4년 7월 11일

104)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4월 10일

105)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4월 10일

106)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4월 11일

107) 『承政院日記』 숙종 27년 5월 1일

108) 『承政院日記』 효종 2년 2월 1일

109) 『承政院日記』 숙종 26년 4월 1일

110) 『承政院日記』 숙종 44년 1월 4일

111) 『承政院日記』 효종 2년 2월 2일

112) 『承政院日記』 효종 7년 2월 4일

113) 『承政院日記』 영조 35년 윤6월 12일

114) 『承政院日記』 영조 37년 12월 25일

115) 『承政院日記』 영조 28년 10월 19일

116) 『承政院日記』 숙종 16년 5월 9일

117) 『承政院日記』 숙종 16년 5월 5일

(2) 外治

① 貼付

癰疽, 瘡癤과 같은 피부 증상에 침구술 외에도 씻거나 바르거나 붙이는 등의 외치법을 병행하였다. 膏藥으로는 腫氣의 초기에 사용되는¹¹⁸⁾ 大黃膏¹¹⁹⁾, 일체의 癰疽瘡節 成膿未膿시에 사용되며¹²⁰⁾ 流汁消毒의 효능이 있는 太乙膏,¹²¹⁾ 促膿消毒之劑인 消毒膏(일명 促膿膏),¹²²⁾ 消毒之劑인 赤小豆膏, 癩瘡痒痛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어¹²³⁾ 汗疹의 치료에 사용된 玉女英,¹²⁴⁾ 瘡瘍의 生肌를¹²⁵⁾ 위해 膿處에 붙인 黃蠟膏,¹²⁶⁾ 혹은 黃蠟¹²⁷⁾ 등에 관한 기록이 보이며, 濕瘡에 檳榔散을 바르기도 하였다.¹²⁸⁾ 또한, 落傷으로 인한 打撲에는 乳香散痛膏¹²⁹⁾가 외용약으로 사용되었다.

單方으로 黃花苗, 老蔥, 蜂蜜을 개어 疔處에 붙이거나¹³⁰⁾ 杏仁을 가루 내어 물에 개어 瘡瘍에 붙였고,¹³¹⁾ 葶麻子 잎¹³²⁾을 직접 붙이기도 하였다. 농처에 插紙法이 사용된 예도 보이는데 여염에서는 극히 사용키 어렵다는 의관의 진술로 보아 상용되는 치료법은 아니었던 듯하며, 삼지한 뒤에 환처에 糯米飯을 붙여 상처를 보호하였다.¹³³⁾ 이 외

에도 귀 질환에 透耳筒,¹³⁴⁾ 棗子丁 등을 언급한 기록이 있으나, 이로 인해 귀에 외상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계하였다.¹³⁵⁾

그 외에도 面瘡에는 栢連散을 발랐고,¹³⁶⁾ 受灸한 자리가 붉게 부어오르자 牛屎를 태운 후 가루 내어 발랐다.¹³⁷⁾ 耳下結核에는 내복약과 함께 獺膽을 부착하였고,¹³⁸⁾ 核患으로 인한 濕瘡에 龍泉散을 외용으로 사용하였다.¹³⁹⁾

② 洗

洗法에는 약을 달여 그 물로 씻는 방법이 있고, 溫泉水나 특정한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洗藥은 膏藥을 바르기 전에 濕瘡의 환부를 깨끗이 하거나, 癢痒症과 痛症 등을 가라앉힐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안과 질환에도 사용되었다.

濕瘡에 苦蔘, 古白礬, 蛇床子를 濃煎하여 달인 물에 씻었으며,¹⁴⁰⁾¹⁴¹⁾ 癢痒症이 있는 濕瘡에는 苦蔘, 槐花, 黃柏을 달여 씻은 후 神捷膏를 발랐다.¹⁴²⁾ 合歡皮,¹⁴³⁾ 甘草節과 蔥白 달인 물,¹⁴⁴⁾ 五倍子,¹⁴⁵⁾ 葶麻葉¹⁴⁶⁾ 등을 洗藥으로 쓰기도 하였고, 癰疽의 初發症에는 熊膽을 물에 타서 씻었다.¹⁴⁷⁾

안과 질환의 경우, 湯泡散과 桑灰煎湯,¹⁴⁸⁾ 臘雪水와 黃連水,¹⁴⁹⁾ 洗眼湯¹⁵⁰⁾ 등, 風毒으로 인한 暴赤을 치료하는 처방들을 사용하였다. 또, 赤暈에 當歸, 白芍藥, 黃連을 달인 물로 자주 씻어주었

118) 大黃膏 治腫氣初結 大黃 當歸 黃柏等分 右末 生地黃汁 和塗貼 (『醫林撮要』卷九 「癰疽門」)

119) 『承政院日記』 현종 2년 5월 22일

120) 太乙膏 治一切癰疽瘡節 貼之神效 亦可內服 須詳證經絡 作湯使送下 玄蔘 白芷 當歸 肉桂 大黃 赤芍藥 生乾地黃 各一兩 黃丹 一斤 眞麻油 二斤 右切入油浸 春七夏三秋七冬十日 文武火煎 黑色去粗 入黃丹再熬以槐柳枝 不可手攪 滴水中 成珠不軟不硬 磁器收貯 成膿未膿皆可貼..... (『醫林撮要』卷九 「癰疽門」)

121) 『承政院日記』 현종 2년 5월 9일

122) 『承政院日記』 효종 즉위년 8월 24일

123) 玉女英 治癩瘡痒痛. 滑石 綠豆粉等分. 爲末 以綿纏子蘸 撲之 或加黃栢 棗葉各五錢 片腦少許 尤妙. 一方用粟米粉 (入門) (『東醫寶鑑』 p.286.)

124) 『承政院日記』 경종 3년 6월 27일

125) 『東醫寶鑑』 p.574.

126) 『承政院日記』 인조 6년 5월 20일

127) 『承政院日記』 경종 3년 7월 17일

128) 『承政院日記』 현종 2년 3월 7일

129) 『承政院日記』 효종 9년 6월 18일

130) 『承政院日記』 효종 9년 1월 21일

131) 『承政院日記』 효종 9년 8월 10일

132)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4월 29일

133) 『承政院日記』 경종 3년 7월 5일

134) 『東醫寶鑑』, 『醫林撮要』 耳病門에 腎虛로 인하여 귀에서 風水聲이 나는 데에 신효하다고 하였다.

135) 『承政院日記』 인조 24년 10월 28일

136) 『承政院日記』 현종 원년 12월 18일

137) 『承政院日記』 현종 원년 12월 27일

138) 『承政院日記』 현종 4년 5월 19일

139) 『承政院日記』 현종 4년 6월 7일

140) 『承政院日記』 현종 2년 1월 8일

141) 『承政院日記』 현종 3년 3월 24일

142) 『承政院日記』 현종 2년 3월 13일

143) 『承政院日記』 인조 21년 8월 2일

144) 『承政院日記』 영조 원년 10월 1일

145) 『承政院日記』 효종 3년 12월 13일

146) 『承政院日記』 인조 6년 5월 20일

147) 『承政院日記』 현종 2년 1월 16일

148) 『承政院日記』 현종 원년 2월 8일

149) 『承政院日記』 영조 36년 8월 2일

150) 『承政院日記』 현종 원년 6월 23일

고,¹⁵¹⁾ 努肉反睛에 荊芥穗, 當歸尾, 赤芍藥, 黃連, 陳皮를 달인 물로 薰洗¹⁵²⁾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溫泉 行宮 기록도 자주 발견되기는 하나, 계절에 따르는 제한이 있고 행궁 절차 또한 간단치 않았으므로, 여타의 치료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에 고려되었다.¹⁵³⁾ 온천의 효과에 관해서는 의학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었다기 보다는 민간치료 수준에서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⁴⁾ 그 효과도 濕冷이 원인이 된 瘡을 치료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으므로 비교적 제한적으로 사용된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鍼灸

① 鍼

침 치료에 관한 기록은 고루 발견되나, 특히 仁祖나 肅宗 代에는 침구 치료가 기타 치료보다 먼저 고려 대상이 되었다. 인조 대에 등장하는 침 시술의 명칭은 經絡鍼, 平鍼, 葉鍼, 燔鍼, 燔房鍼, 火錐, 火針 등으로 다양하다. 平鍼이나 葉鍼¹⁵⁵⁾은 문맥상 燔鍼이나 火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燔鍼, 燔房鍼, 火錐, 火鍼은 모두 동일한 시술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經絡鍼은 阿是穴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침 치료는 매일, 혹은 間日 등으로 치료 일자를 정하되¹⁵⁶⁾ 금기일은 제외하면서¹⁵⁷⁾ 七巡一度 등으로 度數를 두어 시행하였다.¹⁵⁸⁾ 정확한 시침을 위하여 點穴하는 의관과 執鍼하는 의관을 달리 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동일인이 點穴과 執鍼을 하더라도 의관들의 확인을 받고 부정확할 경우에는 다른 의관이 點穴하도록 하였다.¹⁵⁹⁾

침구치료는 吉日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禁忌日

에는 증후가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되도록 시술을 하지 않았다. 禁忌日은 대개는 원칙적으로 弦日¹⁶⁰⁾이나 朔望日과¹⁶¹⁾ 같은 달의 주기, 날씨와 계절,¹⁶²⁾ 節氣,¹⁶³⁾ 運氣¹⁶⁴⁾ 등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禁忌日에 따라서는 頭,¹⁶⁵⁾ 左脚部,¹⁶⁶⁾ 腰脊¹⁶⁷⁾ 등으로 人神所在에 따라¹⁶⁸⁾ 특정 부위만 금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祭祀日에 受鍼하는 일이 神明에게 편치 않으므로 제사를 미루도록 요청하는 기록¹⁶⁹⁾도 발견된다.

침 치료에 따른 일종의 부작용으로 鍼熱의 증후가 발생하였다.¹⁷⁰⁾ 침 치료 후 발생한 煩熱에 대하여 처음에는 鍼穴의 成膿之候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으나,¹⁷¹⁾ 며칠 후 鍼醫들은 본래는 鍼熱이었으나 感冒가 兼發한 것이라며, 입과 입술이 마르고 寒縮이 드는 증상에 대하여, 膿潰의 증상은 이렇게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¹⁷²⁾ 이를 통하여 鍼熱은 침의 삽입에 따른 상처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서, 熱 이외의 전신증상은 심하지 않았으며, 따로 치료를 요할 정도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³⁾ 그러나 때로는 국소의 염증이 심하여 외용약을 사용해야할 경우도 있었다.¹⁷⁴⁾

② 灸, 缸

灸法 역시 각종 내과, 외과 질환에 상용한 치료법으로서, 가볍게는 口味低下부터¹⁷⁵⁾, 結核¹⁷⁶⁾ 및

151) 『承政院日記』 효종 7년 7월 12일
152)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2월 6일
153) 『承政院日記』 현종 6년 4월 7일
154) 『承政院日記』 현종 4년 7월 11일
155) 『承政院日記』 인조 27년 5월 4일
156) 『承政院日記』 인조 11년 10월 6일
157)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6월 14일
158) 『承政院日記』 효종 원년 12월 9일
159) 『承政院日記』 인조 11년 6월 10일

160) 『承政院日記』 인조 21년 2월 7일
161) 『承政院日記』 현종 4년 6월 1일
162) 『承政院日記』 인조 26년 6월 29일
163) 『承政院日記』 현종 3년 7월 21일
164) 『承政院日記』 효종 9년 9월 26일
165) 『承政院日記』 인조 4년 9월 21일
166) 『承政院日記』 현종 3년 8월 6일
167)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6월 10일
168) 『承政院日記』 현종 5년 3월 25일
169) 『承政院日記』 인조 6년 9월 10일
170)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8월 10일
171)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10월 9일
172)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10월 12일
173) 『承政院日記』 인조 17년 8월 20일
174) 『承政院日記』 인조 23년 5월 11일
175) 『承政院日記』 숙종 12년 1월 5일
176) 『承政院日記』 현종 4년 5월 19일

癰疽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가 넓었다. 특히 癰疽의 초기에는 뜸 치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고¹⁷⁷⁾ 그 효과도 우수하였는데,¹⁷⁸⁾ 受灸 후 灸瘡으로 爛破시켜 生肌를 도모하고 있다.¹⁷⁹⁾ 灸法에도 여러 종류가 있었으며, 일반적인 灸法 이외에 煉臍法, 隔蒜灸, 牛角灸,¹⁸⁰⁾ 竹筒灸,¹⁸¹⁾ 丹地灸,¹⁸²⁾ 附缸灸 등이 시행된 기록이 발견된다. 또한 중심부가 원통형으로 비어있는 뜸으로 煉臍法을 시행하던 중 臍上으로 불꽃이 떨어지는 사고가 생기자¹⁸³⁾ 이후 다른 灸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종이에 싸지 않고 뜸만 문쳐서 쓰거나 臍中에 소금을 채운 후 靑布를 깔고 그 위에 뜸을 뜨는 방법 등을 제안¹⁸⁴⁾하고 있다.

煉臍法은 泄瀉,¹⁸⁵⁾ 腹部脹滿症,¹⁸⁶⁾ 疝氣와 腹部冷症¹⁸⁷⁾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부를 온난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隔蒜灸는 癰疽疾患에서 成膿하려 할 때에 毒氣를 消散시키기 위해 시행되거나¹⁸⁸⁾ 聚痰으로 인한 結核處에¹⁸⁹⁾ 사용되었다.

竹筒灸와 付缸灸는 음압에 의한 흡착력을 이용하는 구법으로서 뜸과 부항요법의 중간단계에 해당된다. 竹筒灸는 열기를 가하여 환부에 흡착시키되 뜸의 효과에 보다 의존하는 방법으로서 足冷과 腹痛症에 사용된 기록이 있고,¹⁹⁰⁾ 付缸灸는 그보다 흡착력이 더 강하여 膿이나 惡血을 뽑아내는 힘이 강했던 일종의 부항요법이었다.¹⁹¹⁾ 附缸灸의 시술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방법은 臂痛, 臀痛 등의 질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민간에서는

성행하였으나 왕실에서 인정을 받던 치료술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¹⁹²⁾

뜸 치료에 있어서吉日이나 禁忌는 受鍼시와 유사한 적용을 받았다. 추위에는 寒氣에 상할 우려가 있어 受灸를 꺼렸으며, 뜸 치료의 기간은 일정 壯數를 정해두고 이를 채울 때까지 受灸하였다.¹⁹³⁾

Ⅲ. 결론

『承政院日記』의 전산화작업을 통하여 이에 대한 고무적인 연구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조선의 시대 상황을 대표적으로 반영한 연대기 자료로서 여기에 수록된 의학 관련 내용들은 그간의 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임상 관련 기록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미진한 상태였다. 본고에서는『承政院日記』 속에 흩어져 있는 진료 기록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임란이후 조선후기의 왕실의료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임상 관련 기록은 실로 다양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진료 기록으로 국한시켜 문안과 입진기록 및 구체적인 치료 기록으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을 분류하였다. 『承政院日記』에 포함된 의학 관련 자료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진료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은 물론, 왕실 구성원들에게 발생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임상적 증후와 치료법을 포괄하고 있어, 조선 후기의 왕실의 의료 체도를 비롯하여 당시에 축적된 임상 지식과 경험들을 폭넓게 보여준다.

『承政院日記』의 진료 기록에 나타난 임상 사례들을 통하여 당시의 시행착오와 임상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패턴이나 독특한 치료 방식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에 실효를 거두었던 다양한 치료법들을 현재의 한의학적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제도적 단절로 인하여 전해지지 못하였던 긍정적인 전통의 선별 역시 가능하다.

『承政院日記』에 수록된 방대한 의학 관련 내용

177) 『承政院日記』 현종 2년 6월 29일
 178) 『承政院日記』 현종 2년 4월 26일
 179) 『承政院日記』 현종 4년 2월 14일
 180) 『承政院日記』 인조 11년 6월 14일
 181) 『承政院日記』 인조 21년 10월 21일
 182) 『承政院日記』 인조 20년 6월 10일
 183) 『承政院日記』 영조 원년 10월 18일
 184) 『承政院日記』 영조 원년 10월 19일
 185) 『承政院日記』 숙종 26년 4월 3일
 186) 『承政院日記』 숙종 46년 4월 16일
 187) 『承政院日記』 영조 원년 10월 11일
 188) 『承政院日記』 현종 4년 3월 3일
 189) 『承政院日記』 숙종 46년 4월 16일
 190) 『承政院日記』 인조 21년 10월 21일
 191) 『承政院日記』 영조 13년 6월 4일

192) 『承政院日記』 숙종 38년 5월 17일

193) 『承政院日記』 현종 13년 9월 25일

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고에서 다룬 개별적 정황 외에도 유기적인 분석, 즉, 증후의 발생과 경과, 치료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의안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承政院日記』의 진료 기록에 대한 연구는 의안을 분류하고 증후별 치료법을 분석하는 한편, 그 임상적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보다 정밀한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간의 상호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IV. 참고문헌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楊禮壽 原著, 조현영 외 共譯, 國譯韓國醫學大系『醫林撮要』, 海東醫學社, 1999.

李挺, 『編註醫學入門』, 대성문화사, 1990.

許浚, 『東醫寶鑑』, 南山堂, 2004.

김유성 강효신, 「중종대왕의 병상일지에 대한 고찰」, 동서의학, 1984.

김정선, 「조선시대 왕들의 질병치료를 통해 본 의학의 변천」, 서울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김중오, 「傳統茶藥處方の 복원을 위한 문헌조사」, 한국사학회지, 20(1):96-111, 2007.

김호, 「조선시대 왕실의료」, 한국과학문화재단, 2003.

이규근, 「조선후기 內醫院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정만조 외, 「『承政院日記』의 사료적 가치와 정보화 방안」, 국사편찬위원회, 2003

承政院日記(URL:<http://sjw.history.go.kr>)